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월 2일(월) : 사무국 시무식
- 1월 5일(목)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
- 1월 7일(토) :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 신년회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달력 발송

지난 주 2023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연구원에서 제작한 벽걸이 달력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때까지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계묘년, 건강과 화평이 넘치는 한 해 지으시길 빌겠습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홍범 14조 선포 - 1895. 1. 7

1895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가 선포됐다. 고종은 세자와 종친, 신료를 이끌고 종묘에서 홍범 14조를 알렸다. 홍범은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이란 뜻이다. 청(淸)으로부터의 독립, 납세법에 의한 조세의 징수, 지방관리의 권한 제한, 민·형법의 제정을 통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구체적으로 △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명목을 더해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금한다. △나라 내의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습한다 △민법·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인재를 구함에 문벌·지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한다 등의 조항은 **현재에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바르게 사용 된다면이야...**